

청소년기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 지 원¹⁾ 김 범 준^{1),2)†} 김 보 경^{1)‡}

¹⁾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²⁾연세대학교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연구소

본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수준과 비행경험의 관계와 변화를 알아보고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울수준과 비행경험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 3차(중학교 3학년)와 제 6차(고등학교 3학년)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960명(남자 1,000명, 여자 96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의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과 학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보다 고등학교 3학년의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의 경우 중학교 3학년보다 고등학교 3학년의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남학생이 더 높은 비행경험을 보였다. 우울수준과 비행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수준은 비행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같은 시기의 경우에만 한정적이었으며, 과거의 우울수준은 미래의 비행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울수준의 변화량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변화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비행의 성차, 비행의 변화, 우울, 우울 변화, 우울 성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CYPS)

* 본 논문의 실험 1은 제1저자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제 2저자: 김범준, 연세대학교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연구소 객원 연구원

‡ 교신저자: 김보경, 경기대학교 박사수료, 주소, Email: emme7942@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2,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2022년 6월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과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청소년 4명이 입건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주간 모텔에서 생활하게 하며 성매매를 시켜 9백여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 외에도 영종도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집단 폭행 사건,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같이 아직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고 보기에 잔혹하고 경악스러우며, 매우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또래 집단 폭행 및 성폭행, 그리고 학교 따돌림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를 논의하기 전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비행 및 범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연령은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4839호)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4446호)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민법(법률 제14278호)의 ‘무능력자’ 그리고 형법(법률 제15982호)의 ‘미성년자’가 있으며,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0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20)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강력범죄(흉악)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 심각성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연령을 보면 18세가 26.5% (17,5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17세 21.6%, 16세 20.5%, 15세 17.7%, 14세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비행 청소년의 연령추세를 볼 때 17-18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2.2%, 여자가 17.8%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약 5배 정도이다.

비행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비행행동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교육 풍토, 법률, 전통, 도덕, 그리고 관습에 따라 다르며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정우식, 1986).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은 구체적인 청소년 범죄와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한 개인이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범죄라고 하며, 청소년 비행은 성인이 행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행위의 주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행동을 일컫는다. 학자에 따라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주어진 지위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지위비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김경식, 이현철, 2007; 김준호, 1993; 노성호, 2007; 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사회적 바람직한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 상반되는 행동으로 ‘일탈행위’로 구분하기도 한다(노언경 외 2014; 박성희, 1997).

다른 한편으로 비행은 범법행위 이전의 부적응 행위까지 포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도 내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소년법률 제4067호). 이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도

덕이나 사회의 규범 및 가치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비행으로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행은 비행의 심각성과 종류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비행의 심각성에 따라 비행을 분류한 연구에서는 흡연이나 가출, 무단결석과 같은 청소년의 지위에서 옳지 않은 행위를 경 비행으로 신체 및 정서 폭력, 절도, 강도 등을 중 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이은주,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경식, 이현철(2007), 그리고 노성호(2006)는 지위 비행과 범죄행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준호와 이동원(1993)은 비행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비행 항목을 지위 비행, 약물 비행, 성 비행, 재산 비행, 폭력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2016)는 비행을 일탈 비행과 범법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일탈 비행(deviation misdemeanor)’은 성인이 행하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행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비사회적 행위인 음주와 흡연으로 정의하였고, ‘범법 비행(law-breaking delinquency)’은 일반적인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는 금품갈취, 절도, 허위정보 유포, 폭행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단순 일탈행동일 수 있는 지위 비행과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에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제영 외(2016)의 정의에 따라 비행을 일탈 비행과 범법 비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정, 학교, 또래요인, 성, 약물 문제, 정신적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정신적 문제에 집중해볼 것이다. 광금주와 문은영(1993)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태경, 류준혁, 2011). 실제로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원생 중 정신병력자의 비율은 25.7%이었고, 그 중 우울증과 조울증을 포함하는 기분장애는 21.7%이었다(김슬기, 2019). 이는 청소년 범죄에 부정적 정서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yers & Loeber, 2003; Fantl & Henrich, 2010; Loiner, Metalsky, Katz, & Steven, 1999),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파괴적 행동장애와 같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이나 물질남용과 관련한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울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으며(광금주, 문은영, 1993; Dopheide, 2006),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더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Clarke, 2006). 또한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들은 청소년기에 낮은 학업 성취를 야기하며, 이는 또다시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들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Masten, Roiseman, Long, Burt, Obradovic, Riley, Boelcke-Stennes & Tellegen, 2005). 우울은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주의 집중력이 낮았고,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 범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고은희, 김은정, 2015). 즉,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주의 집중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도록 하고 결국 공격성과 비행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18).

그러나 반대로 우울이 높을수록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Dafoe (2013)의 연구에서 우울은 불안, 수줍음, 회피와 같이 내면화된 문제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내면화 문제들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경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무관심하거나 위협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Ruchkin, Schwab-Stone, Kopolov, Vermeiren, & Steiner, 2002; Zara & Farrington, 2009).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의 불안이 자극 추구 경향을 증가시켜 비행행동과 범죄행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ti, 2018; Zuckerman, 1994, 2007). 이에 청소년 비행에 우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공격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Knox, King, Hanna, Logan, Ghaziuddin, 2000), 반대로 분노를 충분히 느낄만한 상황에서도 분노나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Rottenberg, Gross, & Gotlib, 2005). 이러한 우울 증상의 표현에서도 성차가 있었는데, 여성 청소년은 내향적인 증상 표현(예: 우울, 고독, 슬픔)을 많이 보이지만, 남성 청소년은 외향적인 증상 표현 양상(약물남용, 비행 및 폭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연경, 정송, 홍세희, 2014; 신혜섭, 2005). 즉, 동일하

게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수준과 우울로 인해 상승하는 비행의 종류, 우울과 비행이 연결되어 있는 원리, 위험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McClellan, Farabee, & Crouch, 1997; Van Voorhis, Salisbury, Wright & Bauham, 2010).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은 25.5%이었고, 여학생은 30.7%, 남학생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리학적으로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의 조절에 관여하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의 조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Eid, Gobinath, & Galea,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침샘 테스토스테론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Granger, Shirtcliff, Zahn-Waxler, Caroly, Usher, Klimes-dougen, Bonnie, & Hastings, 2003), 남자 청소년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낮을수록,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천천히 진행될수록 불안과 우울증, 주의력 문제가 증가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감소할 때 파괴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즉,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주며, 동일한 요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였다. 이에 관계에 위협

을 느끼게 되면 여성은 이를 위협 또는 도전(challenge)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Gore, Areltine, & Colten, 1993). 더욱이 여성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바라고 의지하며 (Rose & Rudolph, 2006), 이러한 지지가 사라지게 되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아진 우울은 피해자화(victimization)와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Chesney-Lind & Sheldon, 1998).

남성의 경우 우울이 사회적 작용(social interaction)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비행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남성의 우울 증상은 또래로부터의 거절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또래의 거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만든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비행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이나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결여로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Parker & Asher, 1987). Joiner(1996)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남성은 우울한 여성에 비해 또래의 거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는데, 남성들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성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되어왔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 우울로 인한 또래의 거절은 여성에게도 나타나나, 남성에게서 또래의 거절이 비행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gnew & Brezina, 1997).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많은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때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하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단순한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가 많으며, 성인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과 비행을 횡단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정은 우울이 비행을 유발한 것인지, 비행이 우울을 유발한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제3의 요인이 우울과 비행을 모두 유발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과거 우울 수준이 미래의 비행 수준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량이 비行的 변화량을 예측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이와 더불어 경비행으로 볼 수 있는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볼 수 있는 범법비행으로 비行的 종류를 나누어 비行的 종류에 따라 우울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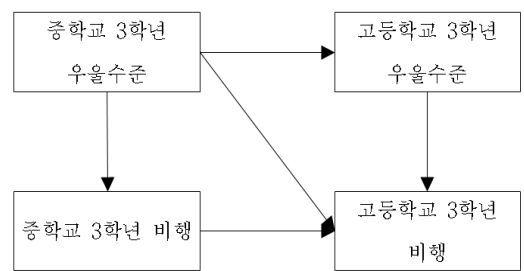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CYPS)중에서 중 1 패널의 제 3차(2012년) 데이터와 제 6차(2015년)데이터를 사용하였다¹⁾. 2012년 3차 조사의 응답자(중학교 3학년)는 2,351(남자 1,140명, 여자 1,119명, 미상 92명)이었으며, 2013년 4차 조사의 응답자는 2,351(남자 1,075명, 여자 1,033명, 미상 243명) 이었고, 2015년 6차 조사의 응답자는 2,351(남자 1,041명, 여자 1,015명, 미상 295명)이었다. 이 중 성별, 우울, 그리고 비행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패널들을 제외한 총 1,960(남자 1,000명, 여자 960명)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초 패널의 선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한다. 즉 16개 시도를 27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 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를 추출,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1차 조사 시 학교 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가 이루어졌고, 3차-6차시에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

우울

우울은 간이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

1) 데이터의 내용 및 설명은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0>).

택, 1984)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에는 ‘기운이 별로 없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4점 리커트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각 시점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3차년도 $\alpha = .90$, 4차 연도 $\alpha = .88$, 6차 연도 $\alpha = .87$ 로 나타났다.

비행

비행은 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개발한 청소년 비행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무단결석’, ‘가출’, ‘폭행’,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협박하기’, ‘집단 따돌림(왕따)시키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마다 지난 1년간 관련 비행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있다(1)’ 혹은 ‘없다(2)’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있다(1)’, ‘없다(0)’로 역코딩하였으며, 비행수준은 14개 문항의 점수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비행의 종류를 분석하기 위해 일탈비행에 해당하는 5개 문항(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등)의 평균을 일탈비행의 점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9개 문항(협박하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의 평균을 범법비행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성별과 학년

조사되었던 다양한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조사 당시의 학년(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만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프로그램 23.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결 과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패널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3학년 일 때인 3차 년도와 고등학교 3학년 일 때인 6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행은 14가지 비행 여부의 평균을 전체 비행 수준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탈 비행에 해당하는 5가지 문항의 평균을 일탈 비행 값으로, 범법 비행에 해당하는 9가지 문항의 평균을 범법 비행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조사 패널들의 우울 정도와 비행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시기와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과 비행 경험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이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로 구분하여 단순

우울의 정도

먼저 두 번의 조사 시점에서 조사 대상 패널들의 우울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1).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 정도는 4점 척도 상에서 평균이 1.98 (.62)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 점수는 1.87(.55)이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 평균과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우울 평균의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간 우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59) = 7.76$, $Cohen's d = .27$, $p < .001$.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점수와 비교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우울 점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조사 시기의 우울 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독립 표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우울과 비행의 기술통계량(평균과 표준오차)

	중3(2012년)		고3(2015년)	
	남	여	남	여
우울	1.90(0.61)	2.07(0.63)	1.78(0.54)	1.97(0.54)
전체비행	0.40(0.98)	0.14(0.52)	0.77(1.09)	0.25(0.58)
일탈비행	0.24(0.65)	0.11(0.44)	0.69(0.94)	0.24(0.56)
범법비행	0.17(0.58)	0.03(0.19)	0.08(0.34)	0.01(0.10)

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패널이 중학교 3학년 때에 남학생의 평균 우울 점수는 1.90(.61)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 우울 값은 2.07(.63)이었으며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58)=-6.39$, $Cohen'd=.41$, $p<.001$. 그리고 이러한 성차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조사 대상 패널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학생의 평균 우울 점수는 1.78(.54), 여학생의 평균 우울 점수는 1.97(.54)이었다. 즉 우울 점수는 학년과 관계없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58)=-8.02$, $Cohen'd=.51$, $p<.001$.

비행 경험

본 조사에서는 14가지 비행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이 각각의 비행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을 바탕으로 비행 점수는 조사 패널이 경험한 비행 항목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에는 14개 비행에 대해 평균 0.28(.80)회의 개입이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평균 0.52(.92)회 개입이 있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경험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행 점수의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입한 비행의 수에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74)=10.87$, $Cohen'd=.40$, $p<.001$.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비행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패널 중학교 3학년 때 남학생의 평균 비행 경험 값은 0.40(.98)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 비행 경험 값은 0.14(.52)이었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49)=7.35$, $Cohen'd=.47$, $p<.001$.

그리고 이 같은 성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패널의 고등학교 3학년 평균 비행 경험의 값은 남학생은 0.77(1.09), 그리고 여학생은 0.25(.58)로 성별 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49)=13.15$, $Cohen'd=.84$, $p<.001$.

우울과 비행

조사시기와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과 비행 경험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표 2. 우울수준과 비행경험의 상관

	중 3 우울수준	고 3 우울수준	중 3 비행경험	고 3 비행경험
중 3 우울수준		.38**	.12**	.04
고 3 우울수준	.44**		.16**	.15**
중 3 비행경험	.11**	.00		.35**
고 3 비행경험	.08*	.14**	.22**	

대각선 위는 남자, 아래는 여자 ** $p<.01$, * $p<.05$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남녀 모두에게서 매 시기의 우울수준과 비행경험 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우울수준의 측정치 간에는 남녀 모두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으며 비행경험의 측정치에서도 남녀 모두 미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여학생에게서만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비행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에게서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 비행경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울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여학생들에게서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수준이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패널의 조사 시기별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조사 시기의 우울수준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비행경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경우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beta=.09$),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1$, $F(1, 1949)= 14.39$, $p<.001$.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3). 그 결과 모형1의 R^2 이 .007에서 모형2에서 .03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41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F 의 변화량도 27.688로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p=.049$.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β 값이 .12으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2$, $F(1, 993) =15.34$, $p<.001$.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β 값이 .11, $R^2=.01$, $F(1, 954)=10.74$, $p<.01$ 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패널의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β 값이 .08, $R^2=.01$, $F(1, 1958)= 12.36$, $p<.001$ 으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우울수준이 조금 감소하지만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표 3.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R^2	<i>F</i>
모형1	우울	.110	.029	3.793***	.000	.007	14.387
모형2	우울	.142	.029	.111***	.000	.038	39.542
	성별	-.288	.036	-8.014***	.000		
모형3	우울	.313	.091	3.421**	.001	.041	27.688
	성별	-.064	.119	-.534	.593		
	우울 * 성별	-.113	.057	-0.966*	.049		

*** $p<.001$, ** $p<.01$, * $p<.05$

표 4.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i>R</i> ²	<i>F</i>
모형1	우울	.133	.038	3.515***	.000	.006	12.358
모형2	우울	.225	.037	6.155***	.000	.098	106.981
	성별	-.566	.040	-14.154***	.000		
모형3	우울	.443	.114	3.867***	.000	.099	72.775
	성별	-.291	.143	-2.036*	.042		
	우울 * 성별	-.147	.073	-2.008*	.045		

****p*<.001, ***p*<.01, **p*<.05

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4). 그 결과 모형1의 *R*²이 .006에서 모형2에서 .09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99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F*의 변화량도 72.775로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p*=.045.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β 값이 .15, *R*²=.02, *F*(1, 998)=21.86,

p<.001. 여학생의 경우 β 값이 .14, *R*²=.02, *F*(1, 958)=18.96, *p*<.001이었다. 이는 여학생도 남학생과 동일하게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비행 경험 점수가 증가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에게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단 연구의 장점은 과거의 지표가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비행경험을 얼마나 예측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수준은 고

표 5.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i>R</i> ²	<i>F</i>
모형1	우울	.008	.033	.252	.801	.000	.064
모형2	우울	.070	.032	2.165*	.03	.083	88.920
	성별	-.534	.040	-13.333***	.000		
모형3	우울	.067	.102	.659	.510	.083	59.250
	성별	-.537	.134	-4.021***	.000		
	우울 * 성별	.001	.064	.022	.983		

****p*<.001, ***p*<.01, **p*<.05

등학교 3학년 시기 비행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5). 그 결과 모형1의 R^2 이 .000에서 모형2에서 .083로 증가하였지만, 모형3에서 .083로 증가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F 의 변화량도 59.250로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추가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우울수준의 변화와 비행경험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시기에 측정된 우울수준은 비행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과거의 우울수준은 미래의 비행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없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우울수준의 변화는 미래의 비행경험을 예측할 수 있을까.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우울수준이 중학교에서 고

등학교로 변화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개입하는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인 우울수준의 변화는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 점수에서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 점수를 뺀 지표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인은 고등학교 3학년 비행경험 점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수준의 변화는 β 값이 .06, $R^2 = .00$, $F(1, 1958) = 7.79$, $p < .01$ 로 미래 비행경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6). 그 결과 모형1의 R^2 이 .004에서 모형2에서 .086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8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F 의 변화량도 62.127로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이 있었다, $p = .08$.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우울수준의 변화가 미래 비행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2 = .01$,

표 6. 우울수준의 변화량이 고등학교 3학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R^2	<i>F</i>
모형1	우울변화량	.091	.033	2.792**	.005	.004	7.793
	성별						
모형2	우울변화량	.097	.031	3.089**	.002	.086	91.563
	성별	-.524	.040	-13.215***	.000		
모형3	우울변화량	.259	.098	2.649**	.008	.087	62.127
	성별	-.536	.040	-13.326***	.000		
	우울변화량 * 성별	-.110	.063	-1.750 ⁺	.080		

*** $p < .01$, ** $p < .01$, * $p < .05$

$F(1, 998)=7.68, p<.01$, 여학생에게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0$, $F(1, 958)=1.71, p=.19$. 즉, 남학생의 경우는 우울이 중학교 3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더 높아지면, 고등학교 3학년에 더 많은 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울수준, 비행종류, 그리고 성차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두 번의 조사시점에서 비행 종류(일탈비행, 범법비행)에 따라 조사 대상 패널들의 비행 경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경험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행 경험 점수의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그 결과, 일탈비행과 범법비행 모두에서 개입한 비행의 수에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탈비행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범법비행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을 할 기회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음주와 흡연과 같은 일탈비행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행에 대한 유혹과 접할 기회가 증가하지만, 절도와 폭행과 같은 범법비행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이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행을 할 시간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표 7. 비행종류와 학년에 따른 비행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3	고3	t
일탈비행	0.18(0.56)	0.47(0.81)	16.01***
범법비행	0.10(0.44)	0.04(0.26)	5.40***

*** $p<.001$

있다.

다음으로 비행의 종류에 따라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행의 종류와 관계없이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울수준이 각 종류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 시기별로 우울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의 비행 경험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경우 우울수준이 일탈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beta=.10$),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일탈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1, F(1, 1950)=20.34, p<.001$. 범법비행의 경우 우울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울 수준이 일탈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9). 그 결과 모형1의 R^2 이 .01에서 모형2에서 .02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2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

표 8. 성별과 시점에 따른 두 종류의 비행

	중3		고3	
	남	여	남	여
일탈 비행	0.24 (0.65)***	0.11 (0.44)	0.69 (0.94)***	0.24 (0.56)
범법 비행	0.17 (0.58)***	0.03 (0.19)	0.08 (0.34)***	0.01 (0.10)

*** $p<.001$

표 9.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의 일탈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i>R</i> ²	<i>F</i>
모형1	우울	.091	.020	4.510***	.000	.010	20.339
모형2	우울	.107	.020	5.310***	.000	.027	26.761
	성별	-.144	.025	-5.731***	.000		
모형3	우울	.192	.064	2.994**	.003	.028	18.499
	성별	-.033	.084	-.390	.697		
	우울 * 성별	-.056	.04	-1.396	.163		

****p*<.001, ***p*<.01, **p*<.05

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패널의 우울 수준이 각 종류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일탈비행의 경우 β 값이 .11, $R^2=.01$, $F(1, 1958) = 10.92$, $p<.01$ 으로 우울수준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수준이 범법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0$, $F(1, 1958) = 4.32$, $p<.05$. 다음으로 우울 수준이 각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일탈 비행의 경우(표 10)모형1의 R^2 이 .006에서 모형2에서 .093로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93로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범법 비행의 경우(표 11)모형1의 R^2 이 .002에서 모형2에서 .024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2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p=.004$.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우울수준이 범법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0.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의 일탈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i>R</i> ²	<i>F</i>
모형1	우울	.111	.033	3.305**	.001	.006	10.920
모형2	우울	.190	.032	5.848***	.000	.093	99.964
	성별	-.487	.036	-13.710***	.000		
모형3	우울	.316	.102	3.105**	.002	.093	67.238
	성별	-.328	.127	-2.580*	.010		
	우울 * 성별	-.085	.065	-1.309	.191		

****p*<.001, ***p*<.01, **p*<.05

표 11.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의 범법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i>R</i> ²	<i>F</i>
모형1	우울	.022	.011	2.077*	.038	.002	4.315
모형2	우울	.035	.011	3.264**	.001	.024	24.728
	성별	-.079	.012	-6.711***	.000		
모형3	우울	.126	.033	3.777***	.000	.027	19.323
	성별	.037	.042	.889	.374		
	우울 * 성별	-.062	.021	-2.886**	.004		

****p*<.001, ***p*<.01, **p*<.05

표 12.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범법비행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β	<i>R</i> ²	<i>t</i>
우울수준(남)	0.10	0.010	3.23**
우울수준(여)	0.02	0.000	0.56
우울수준(전체)	0.05	0.002	2.08*

***p*<.01, **p*<.05

앞서와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비행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지 비행 종류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탈비행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고, 범법비행의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결과는 비행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학교 때의 우울수준은 고등학교 때의 비행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과 학년으로 나누

어서 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비행의 종류도 일탈비행과 범법비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 청소년아동패널조사 연구 자료를 활용해 매 시기마다 측정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거의 우울수준이 미래의 비행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시기 모두 여학생에게서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남학생이 더 많은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에 따라 비행점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남자에게서 비행점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였다(이주영, 오경자, 2011). 본 결과에서 우울과 비행, 두 측정변수들의 초기 수준에서 유의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우울수준

과 비행경험의 시간적 발달관계에서도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 모두 우울이 비행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화 모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울이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서 그 영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에게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비행 그리고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다(Dixon et al., 2004; Pulay et al., 2008)는 사전연구들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패널조사에서 참가자들의 비행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 또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청소년 시기에 은근히 소외시키기, 뒷담화하기,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 등 여학생에게서 더 자주 보이는 관계적 문제행동(relational problems)들이 비행 측정 문항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비행변수 측정문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신체적, 그리고 물리적인 비행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비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관계적 공격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행 행동을 포함하여 비행을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로,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우울수준의 변화가 고등학교 때의 비행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높은 우울감을 보고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경험하고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경험도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 한국 아동 및 청소년 패널 자료를 이용한 종단 연구로,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와 비행행동을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비행의 장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울 수준이 높아지면 이와 함께 비행 경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울이 비행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보여주고 우울과 비행의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7년 치의 자료가 있었지만, 매 시기마다 측정 문항의 변화와 더불어 표본 유지율의 변화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수준과 비행 경험의 측정 문항 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측정 및 비교를 할 수가 없었고, 다양한 비행행동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특히, 비행의 측정에 있어서 각 비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한 비행을 얼마나 반복하였는지 평가되지 않아 비행의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양한 요인과 비행의 빈도 및 재비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행을 측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패널 대상자들의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수준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의 우울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압박과 또래 간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이 청소년들에게는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들이 곧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분 저하나 우울 증상을 자신의 감정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거나, 감정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우울 정도를 묻는 일련의 질문들에 낮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이와는 반대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우울 수준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이유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 비행에 있어 은밀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언어적 및 관계적 폭력의 위험성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비행 유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 (1993).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40.
-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2): 1-22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검사 (SCL-90-R), 중앙적성출판부.
- 김슬기 (2019. 6. 21).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의 처우 개선 방향 [발표자료].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국가인권위원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 김준호, 이동원 (1993).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3(1), 9-194.
- 김준호 (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4(3), 5-43.
- 김현실 (2002). 청소년의 성격 특성, 가정 역동적 환경 및 자살시도간의 관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31-242.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297-332.
- 노성호 (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 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형사정책연구, 72, 243-275.
- 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박성희 (1997).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행동연구, 2, 99-112.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 가해 ·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양재원, 노일석, 홍성도, 김지혜 (2005). 기질 특성이 청소년기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4(3), 350-356.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백서」
- 이은주 (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1), 141-171.
- 이주영, 오경자 (201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 관계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497-518.
- 정우식 (1986). *청소년문제, 그 실상과 대책*. 서울: 삼성출판사.
-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2), 325-352.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제95-01호.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3826¶mPage=2>.
- 홍태경, 류준혁 (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 Agnew, R., & Brezina, T. (1997). Relational problems with peers, gender, and delinquency. *Youth & Society*, 29(1), 84-111.
- Beyers, J., & Loeber, R. (2003). Untangling Developmental Relations Between Depressed Mood and Delinquency in 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47-266.
- Brooks-Gunn, J., & Petersen, A. C. (1991). Studying the emerg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115-119.
- Chesney-Lind, M. and Sheldon, R.G. (1998).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Thousand Oaks, CA: Sage
- Dixon, A. J., Howie, P., & Starling, J. (2004). Psychopathology in femal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5(6), 1150-8.
- Dopheide, J.A. (2006) Recognizing and treating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System Pharmacy*, 63, 233-243.
- Eid, R. S., Gobinath, A. R., & Galea, L. A. (2019).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Insights from clinical and preclinical studies. *Progress in neurobiology*, 176, 86-102.
- Fanti, K. A., & Henrich, C. C. (2010). Trajectories of pure and co-occurr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age 2 to age 12: finding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159.
- Granger, D. A., Shirtcliff, E. A., ZAHN - WAXLER, C. A. R. O. L. Y. N., Usher, B., KLIMES - DOUGAN, B. O. N. N. I. E., & Hastings, P. (2003). Salivary testosterone diurnal variation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developmental effec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2), 431-449.
- Gore, S., Aseltine Jr, R. H., & Colten, M. E.

- (1993). Gender, social-relationship involv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 101-125.
- Joiner, T. E. (1996). A confirmatory factor-analytic investigation of the tripartite model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5), 521-539.
- Joiner, T., Metalsky, G., Katz, J., & Steven R. H. Beach. (1999). Depression and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Psychological Inquiry*, 10(4), 269-278.
- Knox, M., King, C., Hanna, G. L., Logan, D., & Ghaziuddin, N. (2000). Aggressive behavior in clinically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5), 611-618.
- Leadbeater, B., Blatt, S., & Quinlan, D. (1995). Gender-Linked Vulnerabilities to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1), 1-29
- Masten, A. S., Roisman, G. I., Long, J. D., Burt, K. B., Obradović, J., Riley, J. R., ... & Tellegen, A. (2005). Developmental cascades: linking academic achieve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over 20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1(5), 733.
- McClellan, D. S., Farabee, D., & Crouch, B. M. (1997). Early victimization, drug use, and criminality: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prison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4(4), 455-476.
- Nolen-Hoeksema, S. (1990).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 Stanford University Press.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3), 424-44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ulay, A., Dawson, D., Hasin, D., Goldstein, R., Ruan, W., Pickering, R., Huang, B., Chou, S. & Grant, B. (2008). Violent Behavior and DSM-IV Psychiatric Disorders: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9. 12-22.
- Rantakallio, P., Myhrman, A., & Koironen, M. (1995). Juvenile offen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sex differenc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 in Social and Genetic Epidemiology and Mental Health Services*, 30(3), 113-120.
- Rottenberg, J., Gross, J. J., & Gotlib, I. H. (2005). Emotion context insensitiv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27.
- Ruchkin, V. V., Schwab-Stone, M., Kuposov, R., Vermeiren, R., & Steiner, H. (2002). Violence exposure, posttraumatic stress, and personality in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1(3), 322-329.
- Rich, A. R., Kirkpatrick Smith, J., Bonner, R. L., & Jans, F. (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 Behavior*, 22(3), 364-373.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131.
- Thornton, W. E. (1982). Gender traits and delinquency involvement of boys and girls. *Adolescence*, 17(68), 749.
- Van Voorhis, P., Wright E. M., Salisbury, E., & Bauman, A. (2010). Women's Risk Fact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Existing Risk/Needs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a Gender-Responsive Supple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3), 261-288.
- Zara, G., & Farrington, D. P. (2009). Childhood and adolescent predictors of late onset criminal care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3), 287-300.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Y : Cambridge Uni Press.
- Zuckerman, M. (2007). The sensation seeking scale V (SSS-V): Still reliable and vali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303-1305.

1 차원고접수 : 2022. 06. 15.

심사통과접수 : 2022. 11. 08.

최종원고접수 : 2022. 11. 25.

Effects of Depression on Delinquency - Focused on Longitudinal Changes -

Lee ji won¹⁾ Kim Beom jun^{1),2)} Kim Bo kyung¹⁾

¹⁾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²⁾Yonsei Psychological Science Innovation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c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tudy(KCYPS) data conducted from 2010 to 2016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were used for this study. Data from the year 2012 and 2015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ich consisted total of 1,960 individuals including 1,000 male and 960 female participants. Participants were to answer 10 questions for their subjective depression, and 14 questions for their past delinquent behavior. Results from the year of 2012 and 2015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time-varying changes of dep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were analyzed. As a result, measured depression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adolescents, and delinquency score was higher for male adolescents for both of the period.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delinquency, but only for the concurrent period. Past depressive feeling was not able to predict future delinquent behavior. Changes in depression predicted changes in delinquent behavior and the future delinquent behavior.

Key words : Depression, Delinquency, Adolescence, KCYPS, NYPI, Longitudinal Changes, Time-varying Changes, Delinquent Behavior